

여야 3당 원내대표 담판 결국 무산

한국당 제외 6월국회 소집 추진키로 경제청문회 놓고 민주·한국당 이견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16일 6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한 담판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한국당을 제외한 6월국회 소집이 추진된다.

이날 여야 3당 교섭단체의 담판이 최종 무산된데는 자유한국당이 요구했던 경제청문회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이견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상화에 대해 이날 저녁까지 한쪽의 일방적인 양보로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17일 한국당을 제외한 국회 소집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당을 제외한 국회가 소집된다 하더라도 정상 가동이 불투명 할 것으로 보여 여야 4당과 한국당간의 정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사이를 오가며 중재 역할을 했던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상화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다. 바른미래당의 중재역할도 여기가 끝”이라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언급하고 “우리는 예정대로 내일 6월 국회 소집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 원내대표는 이날까지 3개 교섭단체 간 국회 정상화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단독으로 6월 국회 소집 요구를 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동시 압박한 바 있다.

그는 “이제 내가 중재할 게 없다. 협상은 깨졌다”며 “민주당과 한국당 중 한쪽이 포기하거나 한쪽이 (상대방 협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회 정상화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당 사이에서 화도 내보고 협박도 하고 읍소도 했지만, 둘 다 단어 하나하나에 집착하면서 협상은 한결음도 못 나갔다”며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협상 조건으로 내건 경제청문회 개최와 관련,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경제청문회 얘기가 나와 그 연관성에 대해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게 사실”이라며 “민주당에서는 한국당이 협상에 진정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결정적으로 이견을 보인 부분은 ‘경제청문회’ 개최 여부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추경 심사에 앞서 경제청문회를 통해 경제 위기의 원인을 짚어야 한다”라는 내용의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고 민주당에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보냈다.

그는 이어 “청와대 반대가 심해서 경제청문회를 받지 못하는 것 같다”며 “청와대는 경제청문회를 하면 경제 실정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지는 것을 두려워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나 원내대표는 “경제청문회를 받아주면 재해 추경 분리 정도는 양보할 수 있고, 예산도 조정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경제청문회 외에도 조정해야 할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여야의 국회 정상화 협상이 사실상 무산 위기에 내몰리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제라도 한국당을 제외하고 국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경제청문회 개최 요구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잘라 말했다.

당내 한 중진 의원은 “이 정도 되면 인내의 임계점이 이미 지난 것”이라며 “협상이란 것은 서로 양보하고 이견을 좁히는 것이 아니다. 이견 (한국당이 협상을) 깨려고 그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는 기다리면 안 된다. 국민 대다수가 단독 국회를 원할 것”이라며 “원칙을 가지고 하되 단독 국회를 열어두어 어느 국민도 지적할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고 이희호 여사 영정에 헌화하는 문 대통령

북유럽 순방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공항 도착 후 곧바로 고 이희호 여사의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동교동 자택을 찾아 고인의 영정에 헌화하고 있다.

정기 브리핑

면접시험관 절반 이상 외부전문가

황주홍,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대표발의

민주평화당 황주홍(고흥·보성·장흥·강진)의원은 지난 14일 국회를 비롯해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면접시험을 실시할 경우 복수의 면접위원을 두도록 하고, 면접위원중 50% 이상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명 이상의 면접위원을 두고 그 중 50%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하도록 의무화했다. 황의원은 “4%대 실업률이 5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는 등 구직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채용과정의 공정성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특히 공공분야의 특혜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총출력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개정안에는 특혜채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해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탁 또는 대행하는 기관에서 면접시험을 실시할 경우

서삼석 의원 국회등원 1주년 의정보고회

여성농업인 지위향상·국비확보 등 두각

지난해 6·13재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의원이 최근 등원 1주년을 맞아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여성농업인의 질향상, 농수산물수급안정, 도서주민의 교통기본권, 해양쓰레기 처리, 침몰선박잔존 유체 제거사업, 근해어업 활성화 대책 마련 등 민생국감을 통해

서 의원은 국회 본회의 참석률을 비롯해, 상임위와 예결위는 물론 소속위원회 회의 참석률 모두 100%로 확인됐다.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업무 중의 하나인 입법 활동의 경우 대표발의의 30건으로 주로 여성농업인 지위향상 등 농어촌의 밀접한 현안에 의정활동이 집중됐다.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지난 예산정국에서 호남에서 유일하게 여당 예결위조정소위원으로 활동하며 광주·전남이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하는데 힘을 보탰다.

또한 서울-지역간 교통편 이용은 연간 187회로 일주일에 평균 2회 가량 지역을 방문했다.

서 의원은 “섬없는 열정으로 서민과 소수약자, 농수축산인들의 작은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서 의원은 또 국감 등 상임위 활동을 통해 도서지역 수자원 확보 및 가뭄대책, 농

여야 4당 “6·15 남북공동선언 정신 잇겠다”

평화구축 기여 평가...한국당은 논평 없어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지난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19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대를 열었다”며 “역사적인 2018년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 평양선언으로 이어지며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으로 가는 초석이 됐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은 6·15 선언과 관련한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이대변인은 이어 “19주년을 맞이한 오늘 6·15 선언의 정신을 다시금 되새기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공동

다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6·15 선언은 한반도 공생공영을 모색하기 위한 남북 대화와 협력의 첫 시

의 노력이 국민을 위한 평화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6·15 선언은 통일의 원칙과 방안, 과정에서의 구체적 교류 협력까지 명시해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한 역사적 사건 그 자체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평화는 바른미래당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그 여정에 6·15 정신이

마르지 않는 자혜의 샘이 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한반도 평화 문제가 담보상태에 있는 지금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인과 불굴의 의지를 더욱 되새겨야 한다”며 “김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한 정통 평화당은 6·15 선언 내용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6·15 선언은 남북의 정상이 직접 만나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평화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기틀을 마련했다”며 “과감한 행동으로 다시 한번 평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바른미래, 집안싸움 끝 총선 앞으로

정당 바로 알리기 전단 7만3천부 배포

4·3 보궐선거 이후 극심한 내용을 거듭해온 바른미래당이 내년 4월 총선 준비에 뛰어 들었다.

역 현장을 뒤흔으며 유권자들에게 전단을 배포할 예정이다.

16일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최근 전국 103개 지역위원회에 ‘바른미래당 바로 알리기’ 전단을 위원회당 500~1,000장씩 총 7만3,000부를 배포했다.

두 달 넘게 끌어온 당내 갈등이 ‘혁신위원회 출범’으로 일단 봉합 국면에 접어들자 ‘바른미래당 제대로 알리기’를 본격적인 총선 준비의 신호탄으로 쏘아 올린 모양새다.

전단에는 윤창호법 통과,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난민 지원 정책 등 바른미래당이 중점 추진한 7개 민생 법안·현안을 소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 초선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집안싸움을 하느라 아무것도 못 했다”며 “싸움 만큼 싸웠으니 앞으로는 일을 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이들이 지

/연합뉴스

장성 전원주택 토지매매

* 이제 교통이 최고입니다. *

■ 광주에서 15분
장성 IC, 장성호(담) 1분 (국도도로 12m접)

■ 최고의 전원주택 / 산새좋은.공기좋은
300평 - 매가 2억 1천만 (도로앞면 18m) (국도12m접)

- ① 50평 - 매가 4천5백만(주택, 텃밭+주말농장,창고적합)
- ② 100평 - 매가 9천만원(주택, 텃밭+주말농장,창고적합)
- ③ 300평 - 매가 1억2천만(주택, 텃밭+주말농장,창고적합)

기타 추천물건

- ① 장성을 용강리 - 국도도로 접함 (4,545m2) - 1억3천만
- ② 장성을 용강리 - 국도도로 접함 (2,270m2) - 7천만
- ③ 장성을 안평리 - 2차선 도로 접함(523평) - 1억6천

062-382-5500 / 010-6670-9800

상가 매매 [급매]

■ 북구 문흥동 (6층) 아파트 1만세대 위치
(병원,대형학원,한의원,스포츠,기타적합)

■ 6차선 도로접 코너변 위치
■ 보증금 1억에 월 400만

▶ 감정/시세 → 15억
매 가 → 8억

기타 추천물건

- ① 상무지구 메가박스앞 (7층 중 6층) 80평 ▶ 매가 2억8천
- ② 북구 용봉동 (원룸) 토 80평 건물165평 ▶ 매가 6억8천
- ③ 첨단지구 상가 (10층) 25평 (전망최고) ▶ 매가 9천

062-382-5500 / 010-6670-9800

경매 교육 [기초 특수]

☆ 무료 교육 2회 실시 ☆ (월,수,토)

- ① 초급 실전반 (기초 + 실전)
- ② 중급 실전반 (기초 + 실전 + 특별)
- ③ 고급 특수반
(유치권, 지분, 법지, 개발, 절반가격)
- ④ 직업 전문반
(사무실근무, 전문컨설팅)

※ 사무실 함께 쓰실분
(책상, 컴퓨터 → 제공 / 주1회 물건 분석 스티디)

경매 물건 추천

- 1. 북구 문흥동 (상가주택) 토58평, 건86평
▶ 감정이 2억7천 → 최저가 2억7천
- 2. 북구 중흥동 (상가건물) 토52평, 건43평
▶ 감정이 2억9천6백 → 최저가 2억7백
- 3. 북구 일곡동 (4층 중 1층상가) 토15, 건41평
▶ 감정이 3억7천6백 → 최저가 2억6천3백
- 4. 광산구 우산동 (4층 중 2층 상가) 실평수 121평
▶ 감정이 14억1천만 → 최저가 4억

062-382-5500 / 010-6670-9800